

석사학위 논문

## 중세국어 양보부사 연구

이 상 훈

2011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선생님

본고는 중세국어 양보부사의 형태/통사 및 의미론적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양보부사의 목록을 선정하였다. ‘양보’란 무엇이며, 양보부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중세국어의 양보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논의에서 양보부사로 잘못 분석한 것들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세국어 양보부사는 ‘비록’, ‘아마리’, ‘현마’, ‘가사/가설’, ‘아마커나’이다.

3장에서는 중세국어 양보부사의 형태통사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양보부사의 형성 과정과 양보의 연결어미들과 호응하는 현상 위주로 살펴보았다. ‘비록’은 향찰에서 ‘必于’(\*비루) 혹은 ‘必只(\*빌오/비로/비록)’로 나타나고, 이두에서는 ‘必于’(\*비루) 혹은 ‘必乎’(\*비로)의 형태로 나타나며, 양보의 연결어미(‘나’, ‘어도’, ‘고도’, ‘니들’, ‘르뽀땡’, ‘건마란’, ‘거니와’) 대다수와 호응하는 모습도 살펴보았다. ‘아ㅁ·리’는 그와 유사한 조어방식을 보이는 ‘아ㅁ·레’, ‘아ㅁ·레’ 등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 외에 ‘현마’는 관형사 ‘현’에 명사 ‘마’가 결합된 것으로, ‘가사’는 한자음을 그대로 표기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아마커나’는 기원적으로 ‘아마라하’에 연결어미 ‘거나’가 결합된 ‘아마라하거나’에서 교체된 형태로 추정하였다.

4장에서는 중세국어 양보부사의 의미론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비록 은 한문의 雖 뿐만 아니라 縱, 直饒, 設, 假使 등과도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한문의 直饒 와의 대응을 통해 ‘현마’ 와도 의미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아마리’ 는 양보부사로의 쓰임 외에 두 가지의 의미를 더 파악하였는데, “어떠어떠하게” (자리채우미)의 의미와 “어떻게” (방법)의 의미를 더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현마’ 는 또한 양보부사 외에도 세 가지의 의미를 더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잘 모르거나 정하지 않은 수량이나 정도를 뜻하는 “얼마 만큼”, “어느 정도” 의 의미를 갖는 명사, 둘째 “절대로”, “결코” 의 의미를 갖는 부사, 셋째 “차마”, “설마” 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파악하였다. 가사/가설 은 한문의 設, 設使, 假, 假使 등과 다양하게 대응하는 것을 통해 ‘양보’ 의 의미와 가정 / ‘조건’ 의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는 ‘양보적 조건’ (concessive conditionals) 부사로 파악하였다. 끝으로 ‘아마커나’ 는 한문의 假使 와 대응하는 것을 통해 가사/가설 과 같이 ‘양보’ 의 의미와 가정 · ‘조건’ 의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는 ‘양보적 조건’ (concessive conditionals) 부사로 파악하였다. 그 외에 ‘아마커나’ 는 현대국어의 “시험 삼아 한 번” 에 해당하는 의미도 갖는 것으로 보였다.

5장에서는 결론 및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